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⑪ 선종오가의 전래와 의의



▶ 한줄 요약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오가의 선풍은 고려 전기까지는 거의 이렇다할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 뚜렷한 성과 없었던 고려 초 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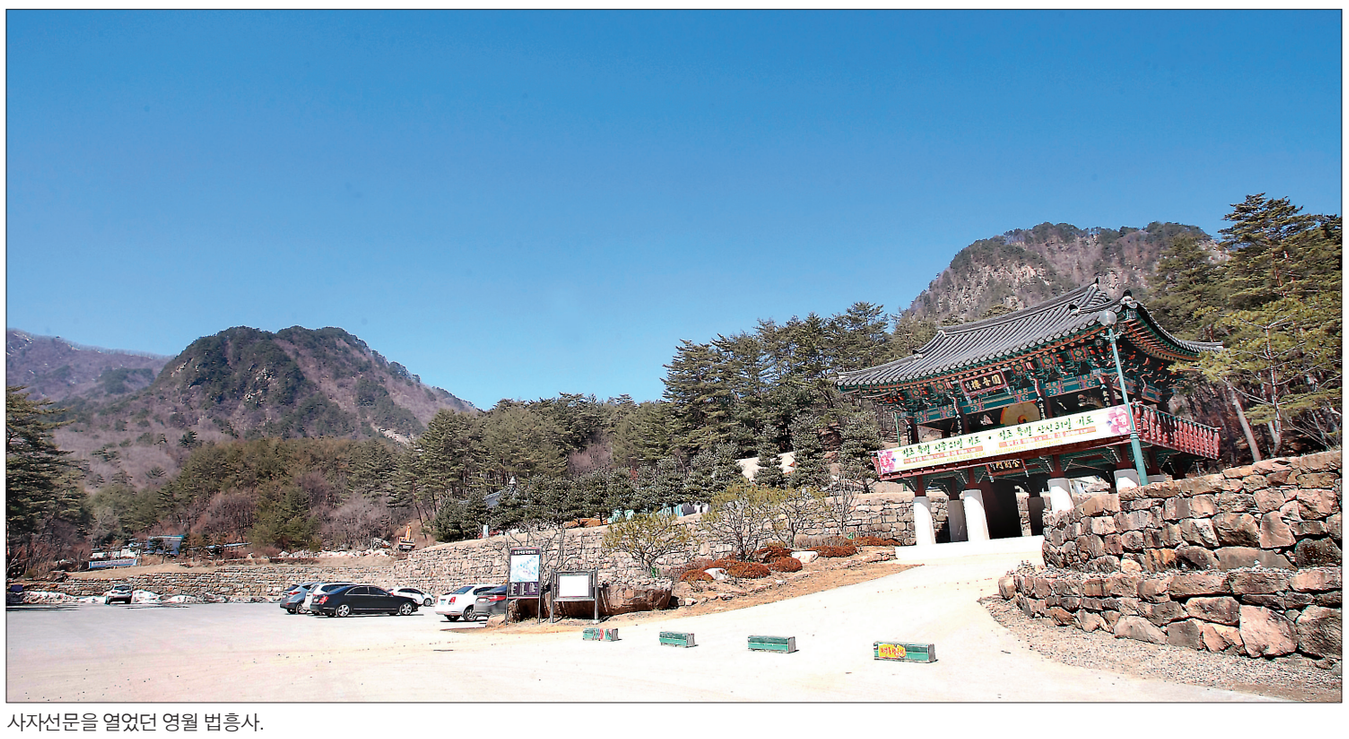
### 1) 선종오가의 전래

신라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선법은 다양한 선풍의 수입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주로 중국의 선종오가에 속하는 선풍이었다. 신라 말기에는 우선 요오 순지를 통하여 위앙종풍이 수입되어 오관산 용암사(龍巖寺)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후에 서운사(瑞雲寺)로 개칭되었다. 이어서 고려 초기 태조 왕건으로부터 크게 후원을 받아 전개된 조동종풍은 중국 조동종 계통의 몇몇 법계로부터 많은 선자들의 수입으로 크게 돋보였다. 이어서 광종시대에는 한때 오월국의 후원을 받았던 법안종의 도입이 정책적인 후원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에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은 10세기 후반에 입송하여 임제종 계통의 정인 도진(淨因 道臻, 1014~1093)과 부산 법원(浮山 法遠, 991~1067), 그리고 운문종 제5세 대각 회련(大覺懷璉, 1009~1090) 등에게 사사하였고, 송의 신종 황제로부터 법원대사(法遠大師)의 호를 받았다. 여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측면으로 국가 외교의 원만한 이해가 결부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후 1080년에 귀국하였는데, 1107년에는 왕사로 책봉되었고, 1114년에는 국사로 책봉되었다. 당시 북송시대 선종은 임제종 계통에서 황룡파(黃龍派)와 양기파(楊岐派)가 출현하였는데, 처음에는 황룡파의 세력이 크게 부각했다가 이후에 양기파의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담진은 임제종풍과 운문종풍을 아울러 수입하였는데 국내의 법계로는 사굴산문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이로써 11세기 후반까지는 중국의 선종오가의 선법이 모두 전래되었다.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형성된 중국 선종오가의 순서는 위앙종을 비롯하여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의 차례였다. 이것이 신라 및 고려에 수입된 것은 9세기 후반부터 11세기 후반에 걸쳐 200여 년이 걸렸는데, 그 순서는 위앙종, 조동종, 법안종, 임제종과 운문종이다. 중국에서 선종오가의 형성과 그 전개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신라 및 고려로부터 직접 유학한 선승들에 의하여 직수입되었다는 점에서 오가종풍의 수입에 적극적인 면모가 엿보인다. 이것은 선법의 수입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신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고려에는 이미 선법에 대한 이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오가선풍이 수입된 이면에는 특히 대각국사 의천이 주도한 고려 천태종의 개창운동과 관련하여 당시에 다수의 조계종 승려들이 천태종의 개창에 참여했다가 일부만 남고 탈퇴하면서 조계종단을 형성하려는 자각도 함께 작용하였다. 그것은 직접 유학하여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은 종풍을 전래하였지만, 귀국해서는 오가종풍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 오가의 종풍을 전래했다는 법계에 대한 의식보다는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선풍에 대한 호기심과 그 종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리 및 수행의 가풍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였다.



사자선문을 열었던 영월 법흥사.

### 2) 선종오가 전래의 의의

이와 같이 신라 말기와 고려 전기에 걸쳐서 전래된 중국 선종오가의 종풍은 비록 부분적이고 한정된 인물들에 의한 결과였지만, 신라 말기부터 고려 전기까지 200여 년에 걸쳐 모두가 전래된 데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인다.

첫째는 선법의 수입에 대한 성격이다. 최초 수입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선법의 전래는 이미 국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교학불교에 대한 한계성 내지는 심화된 불법의 탐구를 인식하고 보다 세련되고 새로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의 자극에 따라서 전개되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법상종(法相宗)·법성종(法性宗)·열반종(涅槃宗)·계율종(戒律宗)·원융종(圓融宗) 등 오교(五敎)로 대변되는 교학을 공부하고 그 한계를 느낀 이후에 당나라에 유학했다는 점이 보편적으로 보였다. 특히 입당 유학승들의 경우에는 화엄교학의 공부와 선법의 접점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소개된 선법에 대해서 당시까지는 심화된 이해가 형성되지 못했던 까닭에 조사선과 여래선, 남종선과 북종선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최신의 선법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랑 및 신행에 의한 동산법문의 수입이 있었던 이후에야 홍주종풍에 대한 수입이 주류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때문에 신라에 새롭게 수입된 선법의 경우에는 자파의 존립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교의 차별에 의거한 선법의 우월의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령 무염국사의 무설토론(無舌土論)과 범일국사의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 등이 그것이었다.

반면에 신라 말기 및 고려 전기에 보여주었던 선종오가의 선풍에 대한 전래는 이미 선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래였다. 그리하여 교학에 대한 한계성 내지 초월이라는 입장보다는 선법 자체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과 심화에 따른 관심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곧 이미 선법에 대한 맛을 알고 난 이후에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선법에 대한 욕구의 출현으로 유학을 선택한 것이었다.

둘째는 8~9세기에 전승된 선법의 수입은 당 및 오대의 선종에서 아직 선종오가로 분파되기 이전의 선법을 접한 결과로 말미암아 비교적 한정된 몇몇 법맥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강서종파에 치우친 선법의 전래로 나타났다. 그것은 강서종이야말로 당시 중국의 선종계 동향에서 소위 잡화포(雜貨鋪)로 불렸듯이 가장 번성한 지역의 선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조류에 따라서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불법의 보편적인 면모를 발휘했던 까닭에 선종이었으면서도 불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찾아온 납자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가르쳤던 선풍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신라 말기 및 고려 전기에 전래된 선법의 성격은 선종오가로 분파된 이후의 선풍에 대한 전래였다.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법맥과 선의 사상과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법에 대하여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유학한 까닭에 자신이 관심을 지니고 있는 가풍을 추구하여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법맥에 속하는 유학승이 배출되었다. 그것이 곧 선종오가로 보자면 초반에는 위앙종과 조동종의 경우에는 순수한 선풍의 전래가 가능하였고, 이후에 전래된 법안종과 임제종과 운문종의 경우에는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른 배려와 관심의 측면도 더불어 수반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선종오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빠짐없이 전래될 수가 있었다.

셋째는 중국에서 오가선풍의 형성 순서와 해동에 전래된 순서의 차이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당말 및 오대에 형성된 중국의 선종오가는 소위 남종선이 크게 번영함에 따라 그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물과 지역에 따라 나름대로 사상과 교화와 수행의 특징을 구현하면서 각각 분파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선풍은 위앙종풍이었다. 위앙종의 조사로서 위산 영우(潙山 靈祐, 771~853)와 앙산 혜적(仰山 慧寂, 803~887)은 백장 회해(百丈 懷海, 749~814)의 직계에 해당한다. 임제종은 이보다 약간 이후에 황벽 희운(黃檗 希運, ?~850)의 법을 계승한 임제 의현(臨濟 義玄, ?~867)의 종풍으로 형성되었다. 그것은 〈임제록〉에 보면 임제의 법거량에 대하여 이미 출세하여 권위를 확보하고 있던 위산과 앙산의 코멘트를 통해서 임제선법의 정당성을 보증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점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들 위앙종과 임제종은 홍주종계통에 속하는 선풍이었다.

한편 호남의 석두 희천(石頭 希遷, 700~790)의 법맥에 속하는 선풍으로는 동산 양개(洞山 良价, 807~869)의 조동종과 운문 문언(雲門 文偃, 864~949)의 운문종과 법안 문익(法眼 文益, 885~958)의 법안종 순으로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해동에 전래된 순서는 위앙종을 위시하여 조동종이 먼저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선풍을 전래한 인물은 위앙종의 요오 순지와 조동종의 이엄 기타 다수의 선자들이었다. 이들이 입당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식을 참방하고 사사하며 깨침을 인가받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도를 향한 순수한 선자의 면모로 일관되었기에 정치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에 이미 통일국가가 되어 정립되는 시대에 이르렀고, 송나라의 경우도 오대를 통일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무렵 유학한 승려들에게는 국제간의 역학관계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선법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안종 및 임제종과 운문종을 전래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선종오가가 전래된 시기에도 그 형성과 비교하여 다소 차이점이 엿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라 말기와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가 전래되었지만, 이후로 고려의 선종계에서 그다지 뚜렷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국내에 이미 형성되어 명멸하고 있던 구산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구산선문의 경우는 고려시대 내내 가지산문과 사굴산문만이 면면하게 계승되었고 기타 산문은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그 가운데 사굴산문의 법맥에 속하는 보조 지눌과 가지신문의 법맥에 속하는 보각 일연 등이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목되는 저술들을 남겨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구산문 가운데 기타 산문,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선종오가의 선풍은 고려 전기까지는 거의 이렇다할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선종오가가 모두 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전기에 온전하게 계승된 법맥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선사상의 전개를 보여주는 저술 내지 어록이 전해지지 못하였으며, 뚜렷한 수행풍토를 제시하지도 못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종의 교단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라 말기에 당시 불교의 교학적인 분위기를 일신시켜줄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선법의 도입에는 선교차별과 같은 주장이 출현할 만큼 주체적인 입장에서 활발발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가 전래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주체성이 결여되었다. 선종오가가 형성된 배경에는 선자들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고려 전기에 선종오가를 전래한 선자들은 승과제도라는 국가통제에 매몰되어 자율성과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자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록 하나도 온전하게 남겨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국대 HK교수〉

